

# 100조 들인 출산정책 실패... 관건은 “아이 키우고 싶은 사회”

(10년간)

» 1면 ‘출생률 목표제시보다...’서 계속

2020년부터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 계획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낸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감소  
신한카드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디지털금융 전환·조직개편 잇따라

카드업계가 연초부터 금리 인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맞이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업권 전반에 불어닥친 감원 한파라지만 카드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수준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당장 올해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6월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연내 한 차례 더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감소 불안을 잠재웠다. 반면 이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성 감소 우려는 더욱 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디지털 도입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스템 개편이 함께 진행되면서 올해 구조조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10년간

(카드사 직원 수 추이)

구분	연도	직원 수
신한카드	2015년 6월 말	2765명
	2017년 6월 말	2621명
KB국민카드	2015년 6월 말	1438명
	2017년 6월 말	1530명
카드사	2015년 6월 말	1만1045명
	2017년 6월 말	1만829명

/자료=금융감독원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자에게 기본 퇴직금 외 24개월치 기본급과 연령 및 직급에 따른 최대 30개월치 기본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의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 신청이 몰려 아직 정확한(희망퇴직)신청자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다”며 “모래시계형’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인력 적체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역시 내부적으로 분사 이후 최초로 올해 희망퇴직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가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으로 대상자 및 희망퇴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희망퇴직이 실시될 경우 KB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 은행에서 분사된 뒤 첫 인력감축이 진행된단.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원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며 “노사가 희망퇴직의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실무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타사는 희망퇴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 상위권의 카드사들이 이처럼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 구조조정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신한카드 외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지난 2015년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 이듬해 롯데카드와 BC카드가 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른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카드사 8곳의 임직원 수는 1만829명으로 2년 전인 지난 2015년 6월 말 1만1045명 대비 216명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는 업계의 또 다른 ‘악재’라며 “이에 카드사들이 희망퇴직 외 디지털 금융 강화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면서 경영 비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0만명이 넘는 카카오 고객 기반으로 확장해온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이날 비금융권 최초 자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기존 은행계 카드사가 독점해온 체크카드 시장에 카카오페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카드사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이봉준 기자 b35sea@



원/달러 환율 나홀로 연속 상승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증가 기조로 올해 처음 1070원 선에 올라섰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8원 오른 1071.9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인출 가능

1만원 이하는 출금계좌로 입금  
카드사 해외서비스 수수료 인하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했던 카드 해외 이용수수료의 부과체계가 개선되며, 리볼빙 서비스의 해지도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을 개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카드 해지시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아직 남은 카드 대금으로 납부하거나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연간 적립액은 지난 2011년 2조 1935억원에서 2016년 2조 6885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도 1조 4256억원이 쌓였다.

그러나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려워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다.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는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에 수수료(약 1.0%)와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약 0.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더해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국제브랜드 수수료는 제외한다.

카드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 서비스는 안내를 강화하고 간편해지 제도를 도입한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금리가 연 18% 안팎으로 높아 상환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소액결제일수록 카드수수료 낮아진다

금융위 “7월부터 추가 인하”

올해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 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를 정책제에서 정률제 등으로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제주 편의점, 슈퍼 등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서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